

동유럽 집시선교회(CMC Mission)

(한국외향선교회 헝가리 지부)

3961 Vajdacska, Tohat Ut 40, HUNGARY

Mobil) +(36)-70-544-7141

email) usmcy@hanmail.net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인 성탄절에 7지역의 집시교회 중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4지역의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교회는 직접 집시마을에 들어가 선물을 나눴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치고 기쁨으로 선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며칠 뒤에는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이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가 중단 되는 일이 없고 집시선교지에 더 이상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집시선교 사역 현장에서

1. 마지막 주일 예배, 성탄절 축하예배



사진 설명 : 베츠켓 집시교회 성찬식 모습(좌), 성탄선물을 받아든 집시아이들(우)

2021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금 중단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급작스럽게

확진자들이 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예배당을 비롯하여 모임 등에 제한을 하여 다시금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교인들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단되었던 주택건축이나 도로건설 등 또한 서유럽에서의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자 교인들 중 일부는 대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교인들 중에도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난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시교회 교인들이 지난 2년 동안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2021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성탄절 축하 예배를 4지역의 교회에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서로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탄축하 선물을 위해서 애써주신 후원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성탄절 다음 날, 마지막 주일 예배는 베츠켓 집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해를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약 50-60여 명의 교인들이 예배에 동참하였고 20여 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뒤로하며 한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들립니다.

2.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

근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으로 대세가 될 것이며 확진 속도는 빨라도 증증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은 있지만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교인들이 있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 들어서자 마자 57세의 레지나 자매가 주님 품으로 떠났습니다. 이 자매는 암환자로 항암치료 가운데 있는 기저질환자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못하고 주님 품으로 떠나 많은 교인들이 동참한 가운데 장례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티사카라드 개혁교회 데바이 마티(Devaj Mate) 목사님과 노에미 사모님이 확진되었는데 노에미 사모님은 임신 8개월로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티 목사님과 사모님은 2주 동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또한 노에미 사모님은 사산으로 인해 슬픔 중에 있기도 합니다.

저희 집시선교 현장에서 함께 동역하시는 목회자 14분 중에 8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확진 되었고 또한 자녀들까지 합하면 10여 명이 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자의 확진 비도가 높은 이유를 보니 목회 현장에서 예배와 피할 수 없는 교인들과의 교제가 있어

확진의 빈도가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목회를 감당하는 가운데 코로바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형가리 교회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제목

1. 7지역의 집시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고난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투병중인, 가정이 해체되어 고통 중에 있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문제 등)

2. 루마니아 미션홈 사역을 위해(15년 째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가 온전히 기능을 다하지 못했는데 새해에는 중단 없이 기능을 다하도록

3. 우크라이나 벨렉사스 집시교회를 위해서

벨렉사스 집시촌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바르타 엘레미르 목사님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으로 동역을 해주시는 가운데 있음

4. 집시선교 현지 동역자들을 위해서

사보 다니엘 목사님, 판딧 데이빗 선교사님(캐나다), 발록 페렌치 목사님, 토스 토마

스 목사님, 비하르 산도르와 수산나 목사님, 산도르 토흘톰 목사님, 로린치 아美貌라

목사님과 크리스티나 목사님, 데바이 마띠 목사님, 바타르 엘레미르 목사님, 시몬 목사님 등

5. 후원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집시선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물질로 수고를 감당해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계

십니다. 금년 한 해도 후원해 주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그리고 성도님

들 가정 위에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6. 집시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생들을 위해서

7지역의 집시교회 지도자들이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신학을 하고 있는 반도르 알파드와 쿠카 페렌치를 위해서, 법대에 진학한

반도로 졸리를 위해서

7.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팔순을 넘기신 어머니께서 직장암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시는데 속히 회복이 될 수 있

도록, 아버지의 건강 역시 연약해지지 않으시도록

8. 단기선교들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박 지현 선교사(우크라이나 나지도브론 고등학교 영어 교사)

김 춘미 교수님(부다페스트 사역)

최 동수 선교사님(2022년 1월부터 루마니아 미션홈 사역 예정)

9. 최 영/ 양 애자/ 최 예원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날마다 새힘을 얻어 메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최 예원의 대학 학업을 위해서